

<그러함에도 감사>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다 모입니다. 함께 모여 우리가 나눠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서운함이나 지금의 어려움보다는 감사함을 나누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 삶을 바꾸는 선택이고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하박국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1. 조건을 넘어서는 감사

하박국은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박국의 상황은 그들의 풍요를 상징하는 모든 조건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 아래 무릎 꿇고, 삶의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합니다.

2.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하박국이 진정으로 감사한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은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절대 잃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건강도, 관계도, 경제적인 상황도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3. 능력의 통로되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하박국은 '주 여호와와 나의 힘' 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힘이시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힘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슴이 높은 곳을 뛰는 것과 같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비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그의 감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열매 없는 나무 아래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석
가정예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회목하라 살전 5:13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추석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찬송가 288장 ----- 다 같이

- (1)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라
-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라
- (3)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아멘

성서교독 ----- 106번 감사절(2) ----- 다 같이

인도자 :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가 족 :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인도자 :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가 족 :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인도자 :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가 족 :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불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인도자 :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이다.
가 족 :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인도자 :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가 족 :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역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같이: 여호와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성경 말씀 ----- 하박국 3:17-19 ----- 설 교 자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설 교 ----- 그러함에도 감사 ----- 설 교 자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찬송가 393장 ----- 다 같이

- (1)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없네
그 사랑 변참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 (2)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 (3) 내 죄를 사하여 안위 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후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기도문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중안에서 평안하고 복성한 추석되세요

